

실기고사문제 <연극전공(연출)>

[연출안구성]

출 제 문 제

아래의 대본을 읽고 연출에 필요한 요소를 포함하여 장면을 무대화하시오
(조명/무대/음향/의상/소품 등)

[문제 출처]

- ▷ 작 가 : 모리스 메테를링크
- ▷ 작 품 명 : 틈입자

<문 제>

오래된 저택의 한 방. 좌우에 다른 방으로 통하는 문이 있고, 테라스로 통하는 유리문이 있다

[세 딸] 할아버지, 여기 등잔 밑에 앉으세요

[할아버지] 여긴 어두운 것 같구나.

[아버지] 테라스로 나가시겠어요, 아니면 방에 그대로 계시겠어요?

[아저씨] 그대로 있는 게 낫지 않겠냐? 한 주일 내내 비가 내려서 밖은 춥고 습한데.

[맏딸] 그렇지만 별이 빛나잖아요.

[아저씨] 그까짓 별이야

[할아버지] 그대로 있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니?

[아버지]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위험한 고비는 넘겼으니까. 어머님은 살아났어요.

[할아버지] 그래도 아직은 안심할 순 없다.

[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할아버지] 어머님의 목소리를 들었어.

[아버지] 하지만 의사는 안심하라고 했어요.

[아저씨] 장인어른은 공연히 겁을 주시는 거야

[할아버지] 앞이 안보이니 답답해서 그러네.

[아저씨] 그러면 눈이 성한 우리를 믿으셔야죠. 어머님은 오늘 오후에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조용히 잠들었구요. 오랜만에 평온한 저녁을 맞이했는데, 부질없는 걱정이나 하다니요. 오늘 저녁엔 마음 폭 놓고 좀 웃어도 돼요.

출 제 문 제

[아버지] 아저씨 말씀이 옳아요. 모처럼 내 집에서 편안한 기분을 맛볼 수 있는 날이에요.

[아저씨] 집안에 우환이 들면 꼭 낯선 사람이 집안에 쳐들어 온 것 같다니까.

[아버지] 그리고 집안 식구밖엔 의지할 사람이 집안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아저씨] 네 말이 맞다.

[할아버지] 내 딸을 왜 잠깐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건지.

[아저씨] 의사가 안된다고 하지 않아요.

[할아버지] 생각에 갈피를 잡을 수가 없구나.

[아저씨] 걱정하셔도 소용없어요

[할아버지] (왼쪽 문을 가리키며) 우리들 얘기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아버지] 큰소리를 내지도 않는걸요 뭐. 문이 두꺼운데다가 우리 말소리가 크면 수녀님이 벌써 뭐라고 하셨을 거예요.

[할아버지] (오른쪽 문을 가리키며) 얘기한테는 우리들 소리가 안 들릴까?

[아버지] 아뇨.

[할아버지] 잠들었나?

[아버지] 그럴 거예요.

[할아버지] 누가 좀 들여다보지.

[아저씨] 난 어멈보다 애기가 걱정이다. 태어난 지 벌써 여러 주일이 지났는데 꿈쩍도 안 하다니 여태 한번도 울지 않았잖아? 사람이 아니라 인형을 놓혀 논 것 같다니까.

[할아버지] 귀가 먹었을거야. 어찌면 병어리까지 곁했는지 몰라. 사춘끼리 혼인을 하면 그런 일이 많은 법이거든...

[아버지] 어멈이 고생한 걸 생각하면 차라리 병신이 됐으면 좋겠어.

[아저씨] 그게 무슨 소리냐? 그게 어디 그 애 잘못이냐? 애는 혼자 내버려뒀니?

[아버지] 네. 의사 말이 에미 곁에 두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아저씨] 그래도 간호원은 같이 있을 테지.

[아버지] 아뇨, 잠깐 쉬러 갔어요. 요 며칠 동안 너무 수고가 많았거든요. 우르술라, 가서 애가 잠들었나 좀 들여다 봐라.

[맏딸] 네. 아빠.

세 자매 일어나서 손잡고 오른쪽 방으로 들어간다.

[아버지] 고모님은 언제 오시나요?

[아저씨] 아홉시 경에 올거다

[아버지] 아홉시가 지났는 걸요. 오늘 저녁엔 꼭 왔으면 좋겠는데. 어멈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니까.

출 제 문 제

[아저씨] 틀림없이 올거다. 이 집에 처음 오는 거냐?

[아버지] 수도원을 빠져나오려면 힘이 들텐데.

[아버지] 혼자 오시나요?

[아저씨] 다른 수녀 한 분하고 같이 올거다. 수도원에서는 혼자서 외출을 못하게 하니까

[할아버지] 너희는 걱정이 안되냐?

[아저씨]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불길한 생각만 해서 좋을 게 뭐난 말예요. 고비도 다 지났는데

[할아버지] 자네 누이는 자네보다 손위던가?

[아저씨] 우리 형제 중 맏이예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심사가 산란한지 모르겠군. 자네 누이라두 있으면 좋을텐데.

[아저씨] 곧 올거예요. 온다고 했으니까요

[할아버지] 오늘 저녁이 어서 지나갔으면 좋겠다.

세 딸들 들어온다

[아버지] 잠들었냐?

[맏딸] 네, 깊이 잠들었어요

[아저씨] 기다리는 동안 뭘 하지?

[할아버지] 뭘 기다린다는 거야?

[아저씨] 제 누이가 올 때까지요.

[아버지] 누가 오는 게 안 보이니, 우르술라야?

[맏딸] (창 앞에서) 아무 것도 안보여요.

[아버지] 길에 아무 것도 안보여? 길은 보이냐?

[맏딸] 네, 달빛 때문에 저기 싸이프러스 숲까지 내다 보여요.

[할아버지] 그런데 아무 것도 안보인단 말이지?

[맏딸] 네, 할아버지.

[아저씨] 날씨가 어떠냐?

[맏딸] 좋아요. 나이팅게일 우는 소리 들리죠?

[아저씨] 오, 그래, 그래.

[맏딸] 길에 약간 바람이 불고 있어요.

[할아버지] 바람이 불어?

[맏딸]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는 게 보여요.

[아저씨] 누이가 아직 안오는 게 이상한 걸.

[할아버지] 이젠 나이팅게일 우는 소리가 안 들린다.

[맏딸] 할아버지, 누가 정원에 들어온 것 같아요.

출 제 문 제

[할아버지] 누구냐?

[맏딸] 모르겠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아저씨] 그럼 아무도 안 온게지.

[맏딸] 정원에 누가 있긴 있어요. 갑자기 나이팅게일 우는 소리가 그쳤어요

[할아버지] 그래도 사람 소린 안들리는 걸.

[맏딸] 누가 연못을 지나쳤어요

[다른딸] 연못의 고기들이 놀랐나봐요.

[아버지] 그런데 아무도 안보여? 연못은 보이는데도?

[맏딸] 안 보여요.

[아저씨] 내 누이를 보고 놀란 모양이다. 내가 가서 봐야겠다. (소리친다) 누님! 누님! 오셨어요? 아무도 없는데...

[맏딸] 누군가 틀림없이 정원에 들어왔어요. 두고 보세요.

[아저씨] 그런데 왜 대답이 없지?

[할아버지] 나이팅게일이 다시 우는 소리가 들리잖니?

[맏딸]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요

[할아버지] 사방이 조용한데

[아버지] 무덤처럼 조용해.

[할아버지] 낯선 사람이 지나간 모양이지. 집안식구라면 나이팅게일이 이렇게 조용할 리 없는데. 창문은 모두 열려있냐? 찬 공기가 방안에 들어온 것 같다.

실기고사문제 <연극전공(연출)>

[연출안구성]

출 제 문 제

아래의 대본을 읽고 연출에 필요한 요소를 포함하여 장면을 무대화하시오
(조명/무대/음향/의상/소품 등)

[문제 출처]

- ▷ 작 가 : 니콜라이 고골
- ▷ 작 품 명 : 감찰관

<문 제>

2장

같은 인물들, 도브친스키

안나 안드레예브나 자, 이제 말씀해주세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저는 당신만은
고상하게 행동하시리라 믿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뛰쳐나가니까 당신도
그 뒤를 따라 나가버리더군요! 그러고는 지금까지 이치에 맞는 답을 한마디 못
들었어요. 창피하지도 않으시냐고요! 저는 당신 아들 바네치카와 딸 리잔카의 대
모가 되어 주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도브친스키 대모님, 맹세컨데 존경심을 증명하려고 숨넘어 가게 뛰어왔답니다. 안
녕하세요 마리야 안토노브나!

마리야 안토노브나 안녕하세요, 표트르 이바노비치!

안나 안드레예브나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해보세요. 거기 여관에서는 다들 어떻
게 하고 있나요?

도브친스키 안톤 안토노비치가 부인에게 쪽지를 보내셨어요

안나 안드레예브나 그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장군이던가요?

도브친스키 아니요, 장군은 아니었지만 장군 못지않던데요. 교육도 많이 받은 것
같고 행동에서도 위엄이 넘쳤어요.

안나 안드레예브나 아! 그렇다면 남편이 받은 편지에서 말한 바로 그 사람이군
요.

도브친스키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제가 표트르 이바노비치와 함께 제일 먼저 알
아봤어요.

출 제 문 제

안나 안드레예브나 자, 상황을 자세히 좀 이야기해주세요.

도브친스키 다행이 모든게 순조롭습니다. 처음에 그분은 안톤 안토노비치 시장님에게 무뚝뚝하게 대하더군요. 화가 나서 여관이 엉망이라며 시장님 댁에게 가지도 않을 것이며 시장님 때문에 감옥에 가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안톤 안토노비치가 결백하다는 걸 알고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모든 일이 잘 흘러갔지요. 지금은 다들 자선 병원을 시찰하러 왔습니다....솔직히 말씀 드리면 안톤 안토노비치 시장님도 누가 자기를 밀고하지 않았을까 의심했거든요. 저도 조금 겁이 났어요.

안나 안드레예브나 아니 당신이 왜 겁이 나요? 당신은 공직자도 아니잖아요

도브친스키 그렇긴 하지만 고관이 말을 하면 겁부터 나거든요

안나 안드레예브나 뭐 할 수 없지요....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시고 말씀해보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던가요? 나이가 많은가요? 아니면 젊은가요?

도브친스키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스물셋쯤. 그런데 말하는 투는 완전히 노인이었어요. ' 좋습니다. 나는 거기도 가고, 거기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두 손을 흔든다.) 모든 것이 멋지더군요. '저는 편지를 쓰는 것도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는데 방안이 약간 어두운 것이 아쉽군요'라고 말했어요.

안나 안드레예브나 생김새는 어때요? 갈색머리? 아니면 금발?

도브친스키 아니요, 어두운 아마 색에 가깝더군요. 게다가 짐승 눈처럼 재빠른 눈빛이 사람을 쉽사리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안나 안드레예브나 쪽지에는 뭐라고 썼지? (읽는다.) '여보, 내 상황이 몹시 심각했지만 신의 자비로 소금에 절인 오이 두 개와 철갑상어알 2분의 1인분에 1루블 25코페 이카를 지불했다는 것을 서둘러 알려 주는 바요...(멈춘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서 왜 소금에 절인 오이랑 철갑상어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도브친스키 그건 안톤 안토노비치가 서두르느라 계산서를 쪽지로 써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무슨 숫자가 적혀 있었거든요.

안나 안드레예브나 네, 맞네요, 정확하네요. (계속 읽는다.) '그렇지만 신의 자비로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 같소. 중요한 손님을 위한 방을 서둘러 준비해주시오. 그 노란 색 벽지를 바른 방 말어요. 식사를 더 준비하지는 마시오. 아르테미 필립 포비치의 자선병원에서 간단히 식사를 할 거요. 포도주는 좀 더 시키시오. 상인 압둘린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보내라고 말하시오. 그렇지 않았다가는 그 술집을 모조리 뒤질 거라고 말해요. 여보, 당신 손에 키스를 보내요. 나는 당신의 것이요. 안톤 스크보즈니크-드무하놉스키...' '어머나 세상에! 그건 그렇고 서둘러야겠네! 어이, 밖에 누구 없어?

도브친스키 (문으로 달려가서 소리친다.) 미시카! 미시카! 미시카!

출 제 문 제

미시카가 들어온다.

안나 안드레예브나 잘 들어. 상인 압둘린에게 뛰어가서..... 잠깐, 내가 쪽지를 써줄게. (탁자에 앉아서 쪽지를 쓰면서 말한다.) 이 쪽지를 마부 시도르에게 전해주고 상인 압둘린에게 뛰어가서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해. 그리고 지금 가서 손님방을 잘 정리하도록 해. 저기 침대와 세면대,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놔.

도브친스키 그럼, 안나 안드레예브나, 저는 이제 거기 그분이 어떻게 시찰을 하고 있는지 보러 서둘러 가겠습니다.

안나 안드레예브나 가세요. 가보세요! 더 붙잡지 않을게요.

실기고사문제 <연극전공(연출)>

[연출안구성]

출 제 문 제

아래의 대본을 읽고 연출에 필요한 요소를 포함하여 장면을 무대화하시오
(조명/무대/음향/의상/소품 등)

[문제 출처]

- ▷ 작 가 : 셰익스피어
- ▷ 작 품 명 : 겨울이야기

<문 제>

프롤로그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소리--- 나직하게 무대위로, 객석위로 흘러 다닌다.
여명, 그 신비한 빛이 서서히 비취지면 시간의 여신들 모습을 드러낸다.
아름다운 선율에 맞추어 노래(구음)를 하는 현재, 과거, 미래의 여신들--- 겨울 동화
를 들려주는 듯 그 소리 따뜻하고 부드럽다.

[현재] 어떤 이에겐 시련을 주고 어떤---

[과거] (말 가로채 나선다) 어떤 이에겐 즐거움을 주고

[미래] 어떤 이에겐 고통을 주기도 한답니다.

[함께] 오해의 매듭 짓고 다시 풀기도 하는 우리 시간들은 그 이름의 약속으로 날개
를 펴 볼까 하지요.

[과거] 태고의 질서가 서기전이나

[현재] 현재의 질서가 선 지금에나

[미래] 습관을 뒤집고 파괴할 앞으로나

[함께] 가장 새로운 것 가장 낡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입니다. 지금 하려는 애
기 고색창 연하여 고개 돌릴지 모르나 한 겨울 밤 꿈꾸듯 우리를 청해 주신다면 그
대는 행복한 겨울 동화 속 손님이 될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떠나려고 하자

출 제 문 제

[현재] 어디들 가려는가.

[둘이] 우리? 지금부터 모든 게 온전히 현재 그대 몫이야.

노래 소리 들리면

[과거] 어어? 누가 오는데.

[미래] 수고하시게나.

[토리] (노래하듯이) 수선화가 필 때면 에헤야, 산너머에 처녀가 피고 솟총각 지지배 배 울어대며는 봄 나비도 이 꽃 저 꽃 바빠 죽겠네. 겨울 파리한 얼굴 기도 못 펴고 하얀 눈꽃들 핏빛으로 빨개진다네. 나는야 이웃나라 보헤미아 왕자님 놀아 주던 이 내 노래 상스럽다 쫓겨났다네. 아무도 날 돌봐주진 않아 속임수가 유일한 수입원이 지. 보헤미아 임금님 시칠리아 임금한테 놀러 간대서 배멀미 친구 삼아 여기 왔다네. 시칠리아 왕은 성질이 불이야. 의심은 진실을 먹어대고 나는 돈을 먹는다네. (돈주머니를 흔든다) 부끄러움 물들어 가는 빨간 꽃을 따러 가야지.

레온테스 심각한 일이 있는 듯 화난 얼굴로 들어오면 그 뒤를 바로 이어 카밀로 허둥지둥 들어 온다.

[카밀로] 전하 말도 안되는 그런 소리에 돈을 주시다니요. 그자는

[레온테스] 됐소. 더이상 상관하지 말아요. 설득하려 들지도 말고 진실의 진위를 설교하려 하지도 말아요.

[카밀로] 보헤미아 왕은 곧 떠날 것입니다. 그들은 전하가 베풀어준 호의에 감사하고 우정 어린 환대에 기뻐하셨어요. 더군다나 왕비님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깨끗하고 순결한 분임을 전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질 않습니까?

[레온테스] 순결과 불결은 이 손바닥의 양면과 같소. 그대가 나를 미친 왕이라 비웃겠다면 물러가시오. 내 신하라 하지도 마시오.

[카밀로] 전하 어린 왕자님의 명예를 생각해 주셔야죠.

[레온테스] 그대가 믿질 않으니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시오. 저기들 오는군.

폴릭세네스와 헤르미오네가 들어온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웃음이 즐겁고 다정하기까지 하다. 들어오다 헤르미오네가 기우뚱하며 넘어지려 하자 폴릭세네스가 그녀를 부축하며 몸 여기저기를 털어 준다.

[레온테스] (아무렇지 않은 듯) 어서들 오시오.

출 제 문 제

[폴릭세네스] 한참을 찾아다녔네.

[레온테스] (약간 비꼬듯이) 줄곧 여기 있었는데 보지 못했나 보군

[폴릭세네스] 즐거운 시간이었어. 아름다운 왕비를 모시고 정원을 걷는다는 건 행복한 일이야. 자네가 부러워---

[레온테스] 보지 못한 게 당연하구만. 뭐가 그리 즐거웠소 왕비?

[헤르미오네] 고향 얘기를 들었지요. 보헤미아와 제 고향 러시아는 바로 곁에 있질 않습니까? 오랜만에 고향 친구 아니 친척을 만난 듯합니다.

[폴릭세네스] 왕비님께선 고향이 많이 그리우신가 봅니다. 조그만 얘기 하나에도 관심이 많았다네.

[헤르미오네] 전하의 하나밖에 없는 친구이신 폴릭세네스왕께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알고 계시더군요. 시간이 어디로 새 가는지 몰랐어요.

[레온테스] 보이지 않은 건지 보지 못한 건지 그건 신만이 알겠지.

[헤르미오네] 전하 무슨 언짢은 일이라도.

[레온테스] 아니오 왕비, 옷에 왜 흙이 그리 잔뜩 묻었소. 풀밭에서 뒹굴다 온 사람 같구먼..

[헤르미오네] (밝게) 정원에서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폴릭세네스왕께서 재빨리 잡아 주지 않았더라면 우스운 꼴이 될 뻔했어요.

[폴릭세네스] 다음부터 조심해서 다니세요. 혹시라도 배속에 계신 예쁜 공주님이 놀랄지도 모르잖아요.

[레온테스] 아무리 우리가 어릴 적 친구이긴 하나 태몽도 대신 꾸어준단 말인가.

[폴릭세네스] 장난이 진지해서 무안하려하네. (웃으며) 떠날 때가 된 것 같으이. 두분 단란한 시간을 내 많이 뺏은 것은 같고 왕좌를 비운 지도 너무 오래됐거든요.

[헤르미오네] 전하 이 시칠리아를 떠나시겠단 말씀이세요. 이곳에 머무르시어 고향 얘길 더 해 주시지요.

[레온테스] 떠, 떠나다니 무슨 소린가. 아닐세, 왕비와 자네가 잘 지내는 모습이 좋아 보여 우스개 소릴 해 본 게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게. 우리 우정을 생각해서라도.

[폴릭세네스] 내 나라 보헤미아를 떠나 여기 온 지도 벌써 아홉 번이나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을 보았네. 왕의 후대에 빗만 지고 떠나 마음이 무거울 따름일세.

실기고사문제 <연극전공(연출)>

[연출안구성]

출 제 문 제

아래의 대본을 읽고 연출에 필요한 요소를 포함하여 장면을 무대화하시오
(조명/무대/음향/의상/소품 등)

[문제 출처]

- ▷ 작 가 : 안톤 체홉
- ▷ 작 품 명 : 청혼

<문 제>

나탈리아 : (들어오며) 어머니 세상에, 당신이었군요. 아빠가 말하길 어떤 상인이 좋은 물건을 갖고 왔다 길래 왔는데....안녕하세요, 이완 바실레비치!

로모프 :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나탈리아 스제빠노브나!

나탈리아 : 죄송해요, 이렇게 앞치마 바람에 지저분한 옷을 입고....오늘 완두콩을 씻고 있었어요. 말리는 날이거든요. 왜 그렇게 오래 안 오셨어요? 앉으세요.(두 사람 앉는다.) 아침 드실래요?

로모프 : 감사하지만 이미 먹었습니다.

나탈리아 : 담배라도 태우세요....성냥 여기 있어요. 어제까지 그리도 비가 내려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날씨는 정말 좋아요. 그레 벽돌은 얼마나 찍으셨어요? 전 들판의 풀은 이미 다 베었어요. 근데 너무 빨리 베서 썩어 버릴까봐 걱정이 돼요. 조금 있다가 베는 건데....아니 그러고 보니 옷을 짝 빼 입으셨군요. 그것도 아주 새 걸로요. 무도회라도 가세요? 그건 그렇고 정말 얼굴이 좋아 지셨어요...정말이에요. 왜이리 멋쟁이가 되셨어요?

로모프 : (긴장) 실은 저...존경하는 나탈리아 스제빠노브나....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저...물론 들으시면 깜짝 놀라시겠지만, 아니 어쩌면 화를 내실지 모르시겠지만....그렇지만 전.... (방백) 끔찍이도 축군.

나탈리아 : 무슨 일이세요? (사이) 네?

로모프 :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존경하는 나탈리아 스제빠노브나, 전 이미 어렸을 때부터 당신의 집안을 잘 알아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에게 유산을 물려주신 이모님과 이모부는 늘 이쪽 집안에 대한 칭찬을 하셨죠. 그러니까 저희 집안과 이쪽 집안

출 제 문 제

은...그러니까 아주 가깝게 지냈다는 말이죠. 아마 이 지방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 일겁니다. 그 뿐인가요? 아시다시피 제 소유로 되어있는 목초지는 이쪽 집안의 자작나무 숲과 이웃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탈리아 : 잠깐만요. 방금 ‘제 소유의 목초지’ 라고 하셨는데...그 목초지가 당신 소유시라고요?

로모프 : 제 겁니다만.....

나탈리아 : 또! 그 목초지는 우리 거예요 당신네 것이 아니라고요!

로모프 : 아니죠, 제거죠. 존경하는 스제뻘 스제빠노브나.

나탈리아 : 이젠 저에겐 뉴스거리네요. 무슨 근거로 그쪽 거라고 하시죠?

로모프 : 무슨 근거요? 전 당신네 자작나무 숲과 늪 사이의 목초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탈리아 : 그래요, 그래. 그거요. 그게 우리 거라고요.

로모프 : 아뇨, 착각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스제뻘 스제빠노브나. 그건 제 겁니다.

나탈리아 :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네요, 이완 바실레비치. 아마 유산을 물려받은 지 오래된 모양이지요?

로모프 : 오래라니요? 이젠 확실한 건데 그 땅은 항상 우리 소유였어요.

나탈리아 : 천만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로모프 : 땅 문서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나탈리아 스제빠노브나. 하긴 등기 문제로 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땅이 제 것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제 이모님의 할머니께서 이 땅을 당신 아버님의 할아버님께서 부리던 농부들에게 임대료 없이 빌려 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벽돌 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마치 자기네 땅처럼 거기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곤 그 상태가 흐른 뒤로...

나탈리아 : 완전히 틀리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께서도 저희 땅이 늪지대까지 뻗어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목초지는 그 사이에 있으니까 저희 땅이죠. 따질 필요도 없죠. 이해가 안가요. 아유 기분 나빠라.

로모프 : 그럼 제가 땅문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나탈리아 스제빠노브나.

나탈리아 : 아뇨, 지금 그저 농담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절 놀리시는 겁니까. 이런 세상에! 우린 300년 가까이 이 땅을 소유해 왔었는데 그쪽 거라니요. 이완 바실레비치. 죄송해요, 하지만 전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 그까짓 땅이라야 별 쓸모도 없어요. 겨우 다섯 데샤진에 항상 땅 값도 300루블 어치 정도니 말이에요. 하지만 그 부당한 소리가 참을 수 없다 이거예요.

로모프 : 부탁드립니다대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제 이모님의 할머니께서 이 땅을 당신 아버님의 할아버님께서 부리던 농부들에게 임대료 없이 빌려주었다니까요, 저희 이모님의 벽돌 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모님의 할머니가...

출 제 문 제

나탈리아 :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님.....그런 건 난 하나도 몰라요. 어쨌든 그 땅은 우리 거예요. 끝!

로모프 : 제 겁니다.

나탈리아 : 저희 거예요. 이틀 동안 내리 우기고 그 옷을 다섯 벌을 꺼입는다 해도 그건 우리 거예요, 우리 꺼! 전 당신의 재산을 탐내는 것도 아니고 저희 재산을 잃고 싶지도 않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로모프 : 저에겐 나탈리아 스제빠노브나, 그 땅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원칙이 그렇단 애깁니다. 만약 그 땅을 원하신다면 기꺼이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나탈리아 : 우리 땅을 우리가 선물 받아요? 그건 우리 거예요! 정말 이상하군요, 이완 바실레이치! 여태까지 우린 아주 좋은 이웃으로 관계해 왔어요, 친구처럼, 작년만 해도 우리가 탈곡기를 빌려 드렸죠? 그 때문에 저희는 11월이나 되서야 탈곡을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젠 우릴 짐시 취급하시네요. 우리 땅을 주겠다고요? 죄송합니다만, 이것 이웃사촌이 아니네요! 이건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로모프 : 그렇다면 그 뜻은 제가 약탈자란 말인가요? 아가씨, 죄송합니다만 전 한 번도 남의 재산을 가로채 본 적이 없습니다. (빠른 속도로 큰 컵에 물을 따라 마신다) 목초지는 내 땅이요!

나탈리아 : 진실이 아니예요, 우리 땅이에요.

로모프 : 내 거야!

나탈리아 : 틀려요! 내가 증명해 보이죠! 오늘 오후에 당장 사람들을 보내서 그 땅의 풀을 베겠어요!

로모프 : 뭐라고요?

나탈리아 : 오늘 거기서 사람들을 보내겠다고요!

로모프 : 그러면 전 그들을 즉시 쫓아내겠습니다!

나탈리아 : 어림없는 소리!

로모프 : (심장 부위를 움켜쥐고) 목초지는 제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 거라고요!

나탈리아 : 소리치지 말아 주세요, 소리를 치든지 코를 골든지 자기 집에 가서나 하세요. 여기서 제발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로모프 : 만약에 지금 저의 심장이 뛰지 않고 관자놀이가 쿵쿵거리지만 았았다면 가만히 있지 았았을 겁니다. (소리친다) 제 땅입니다!

나탈리아 : 우리 거예요!

로모프 : 내 거요!

나탈리아 : 우리 거예요!

로모프 : 내 거요!